

영어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이러닝 활용 방안 연구

류다영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A Study on the methods for improving writing ability through e-learning

Da-Young Ryu

Liberal Arts School, Jungwon University

요 약 인터넷에 의해 사회의 모든 분야가 변해가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받지 않고 학습자가 원하는 수준과 방법으로 능동적인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닝을 통하여 영어쓰기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강의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영어쓰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학습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이러닝을 통한 영어쓰기 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셋째,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해 원어민과 글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영어를 학습할 수 있다.

주제어 : 이러닝, 온라인교육, 영어쓰기교육

Abstract Modern society is rapidly changing by the Internet, and it is getting influential on the field of education. Learners can learn what they want to learn actively and freely at their desired level at anywhere in their free time by using the internet.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find out the methods for improving writing ability through e-learn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learners can attend a lecture to improve their writing ability and can get learning materials from on-line course sites, internet websites, communities and blogs. Second, e-learning is learner-centered education, so it stimulates learners learning motivation and interest. Third, learners have an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ideas freely, and they can gain cultural comprehension while they communicate with people in the world by e-mail and chatting.

Key Words : E-learning, On-line Education, English Writing Education

1. 서론

현대 사회는 이제 인터넷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인터넷이 확산되었고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자유로운 접촉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세계 공용어로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교육적 방법도 발달하게 되었고 인터넷 기

Received 18 November 2013, Revised 20 December 2013
Accepted 20 Jan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Da-Young Ryu(Jungwon University)
Email: modestar99@jw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반의 온라인 방식의 학습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닝(e-Learning)이다. 이러닝을 통해 원격 교육이 가능해지면서 과거의 교육 체계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제약이 극복되고 평생학습사회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장을 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어 교육의 목표도 과거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주로 다루어지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공존을 위해 영어로 전달되는 내용을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접근한 정보를 비교 평가한 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두어야 한다[1].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재구성하고 능동적으로 학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장점을 기반으로 이러닝은 국내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주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 및 기업, 평생교육 기관에서도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 이는 교육의 중심이 교수(instruction)에서 학습(learning)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실천하고자 하는 정보사회의 교육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3].

언어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소통에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꼭 말하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전 세계의 가상세계 공간에서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말하거나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쓰기 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문자언어에 대한 경험 제공 및 언어자극에 대한 노출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현재 7차 교육과정상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기능을 고르게 가르치도록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이를 실현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입시에 맞춰진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자연히 쓰기에 대한 비중이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고등학교까지 정규교육을 받고난 학생들도 성인이 되어서 영어로 글을 쓰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영어 쓰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이러닝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러닝은 TV를 통한 원격교육이나 단순히 컴퓨터만을 사용하는 교육보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이러닝의 개념

이러닝(e-Learning)에서 'e'의 의미는 초기에 전자(electronic) 혹은 인터넷(internet) 등의 전자적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경험(experience), 확장(extension), 확대(expansion)의 의미로 학습(learning)을 더 강조하는 의미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3]. 즉, 학습자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할 수 있고, 계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학습경험을 받을 수 있으며 학습내용의 제한이 없이 풍부하게 학습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학자들마다 이러닝에 대한 정의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데, Horton(2001)은 우리 인간을 교육시키는 경험을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일이라고 하였고, Rosenberg(2001)는 지식과 성과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해결책을 전달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인숙(2002)은 전자적인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학습에 적용 가능한 용어로서 이러닝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분산형의 열린 학습 공간을 추구하는 교육 유형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닝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만, 종합해보면 이러닝은 모든 전자 수단이나 정보통신 등의 기술을 접목한 교육이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온라인교육, 사이버교육, 웹기반교육과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2.2 이러닝의 특성

이러닝은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방향이 아

닌 쌍방향성을 통한 교류가 가능하고 학습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누구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교육기회균등을 실현시켜줄 수 있다. 이러닝은 교수-학습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이다. 이러닝의 장점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설계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 스스로 학습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이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자기주도형으로 자신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내용을 원하는 양만큼, 속도를 조절하며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8].

둘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학습할 수 있다. 교실 중심의 면대면 학습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교수자가 주도하는 교육이 진행되지만, 이러닝은 가상의 공간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고 인원의 제약이 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2].

셋째, 풍부한 멀티미디어의 활용으로 인한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의 멀티미디어 및 하이퍼텍스트 환경에 근거하여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학습자에게 제시할 수 있고, 동영상이나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하여 양방향 교육을 할 수 있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 학습 비용이 효과적이다. 이러닝은 면대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실 등의 시설비가 들지 않고 이동시 필요한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시간이 절약되고 교육비 자체가 저렴하여 학습자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한다. 이러닝은 학습자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낡은 자료가 아닌 최신의 자료를 통하여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3 이러닝의 유형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서 활용되는 교수·학습 유형을

크게 분류하면 교수자 중심의 내용 전달형과 학습자 중심의 탐구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닝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분류할 수가 있다. 하지만 웹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Table 1) E-learning types of teaching and learning

Delivering Content	Researching
Information Offering	Question and Answer
	Problem Solving
Self Learning	Cooperative Learning

우선 내용 전달형 중 정보제공은 하이퍼링크를 활용한 관련 정보와의 다양한 연계를 이루고 정보탐색 기술의 연마 및 활용을 하며, 자율학습은 수업내용의 세분화 및 체계적 지시를 하고 반복연습 및 반성적 사고, 적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탐구형 중에서 질의응답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전자우편, 게시판, 질의-응답 코너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문제해결형은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 해결활동을 하고 주제별 토론식 수업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협동학습은 협동목표 구조, 공동과제 구조로 운영되며 소집단 내에서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하고 개별 보상이나 집단보상을 적절히 제공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형으로는 자율학습과 문제해결수업을 들 수 있다[9].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학습의 유형에 따라서 이러닝의 유형을 나눠보면 보조형, 사이버형, 혼합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보조형은 정규 면대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전자메일이나 관련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보충 및 심화학습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이고, 사이버형은 주로 사이버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교육의 전 과정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혼합형은 면대면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일종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혼합적인 형태라는 것이다[10].

이러닝의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수설계 전략은 여러 가지 유형의 장점을 살려 학습하는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이다.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방식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장점과 이러닝의

교육방식의 장점을 결합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러닝과 영어 쓰기 교육

3.1 영어 쓰기 교육의 중요성

쓰기란 단순히 여러 단어를 조합시켜 배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한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구성하여 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없는 문장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문장들을 서로 연관되도록 구성하고 배열해야만 한다. 따라서 쓰기는 말하기나 듣기, 읽기와 달리 보다 많은 노력을 요하며 좀 더 복잡한 사고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다른 언어기능보다도 더 어려운 언어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소유희(1995)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쓰기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는 수업시간에 배운 문법 구조, 숙어, 어휘를 연습하고 복습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들은 쓰기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언어를 탐험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된다. 셋째, 언어를 실험해 보고 주제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킴으로써 언어적 차원을 넘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넷째, 학습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언어에 적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쓰기 영역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언어 형태(form)를 연습하는 것 뿐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서의 쓰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찬규(1994)는 쓰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쓰기교육은 기초단계에 있는 학습자에게는 단어에 대한 인식이나 문법구조에 대한 제어를 쉽게 할 수 있고, 습득 정도가 높아질수록 학습자 자신의 아이디어, 생각, 경험 등에서 얻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교수 방법이며, 둘째, 쓰기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기 발견적 학습을 할 수 있고 구두어를 사용할 때 보다 구문의 형식이나 표현의 습득 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구두어를 사용할 때와 달리 문자어를 사용할 때는 적절한 어휘나 문법사항 및 표현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법이나 표현의 정확성과 다양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쓰기교육은 학습자에게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넷째, 개별학습을 통한 영어의 학습 뿐 아니라 교사나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 교류를 통한 학습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활동의 주체가 되는 소위 학습자 중심의 영어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쓰기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영작문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쓰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모든 과목들이 쓰기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써야하는 경우에도 쓰기능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나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필요성이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영작문이 수업시간에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2 영어 쓰기의 유형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쓰기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쓰기의 유형을 알고 학습자의 쓰기 능력과 목적, 관심사를 고려하여 지도해야 한다[13]. 교육적 상황에서의 쓰기활동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초안을 작성한 후 자신의 글을 다시 수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 Rivers(1981)는 쓰기 유형을 다음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첫 번째 단계는 베끼기(copying)로 초보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훈련을 함으로써 문장을 재구성하고 그 구조를 내면화 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재생(reproduction)이며 받아쓰기 단계에 해당된다. 이 단계에서는 장기기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학습의 진전 여부를 학습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재결합(recombination)으로 문장의 일부나 전체를 변형시켜 새로운 문형을 형성하고, 구두로 연습하는 문형을 실제로 쓰게 하여 구조를 더욱 확실히 익히게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유도적 쓰기(guided writing)인데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의식적으로 언어 형태의 중요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마지막 단계는 표현적 쓰기(expressive writing)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 또는 어떤 문제를 자유자재로 쓰게 한다.

Brown(2007)은 기존의 쓰기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그것은 결과중심과 과정중심의 쓰기이다. 결과중심의 쓰기는 쓰기활동을 한 뒤의 마지막 결과물로서의 쓰기를 중요시하였다. 학급당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교사들은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과중심쓰기를 많이 하게 된다. 결과중심쓰기는 문법, 철자, 어휘, 구성, 내용 등을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교사의 개입이 적어 빠르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와 반대의 개념이 과정중심쓰기이다. 과정중심쓰기는 문법이나 형식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게 되며 다시쓰기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결과물이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작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김홍주(2011)는 오늘날의 글쓰기는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 두 유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쓰기활동이 한 번의 단발적인 활동으로 끝나는 것은 고쳐쓰기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과정이 반영된다는 이점을 간과한 것이라 바람직하지 못한 반면, 지나치게 쓰기 과정만을 중시하는 것은 글쓰기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결과물을 경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3.3 이러닝 기반 영어학습의 특징

Krashen(1982)은 학습자에게 입력되는 언어수준이 학생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높아야 유의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i+1$). 따라서 학습자 각각의 수준에 맞추어 그들에게 맞는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에 알맞은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이러닝 기반의 영어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고 흥미로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김정렬(2008)은 이러닝 기반 영어학습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원어민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상황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멀티미디어 도구를 지원한다. 둘째,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ICT 도구의 활용을 통하여 음성 언어적 혹은 문자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닝이 가지는 개방성과 멀티미디어 속성을 토대로 맥락적 언어사용 상황을 모사하고 접근 가능하게 한다. 넷째, 영어권 문화와의 원활한 접촉을 할 수 있다. 다섯째, 폭넓은 자기 주도적 탐구력뿐만 아니라 학습 공동체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형성을 통해 협동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징을 통해 이러닝은 영어학습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3.4 이러닝을 통한 영어쓰기 학습

3.4.1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한 영어쓰기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영어 학습’, ‘영어 쓰기’, ‘영작문’ 등의 몇 단어만 검색해도 수없이 많은 사이트들이 추천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이트들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하고 유용한 사이트를 고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또한 모든 사이트들이 영어 학습을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유료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유료사이트들이 비용을 지불한 만큼의 영어에 대한 실력을 향상시켜준다고도 보기도 어렵다. 물론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든지 학습자의 자세와 의지가 또한 중요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영어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EBS (<http://www.ebs.co.kr>) 등의 온라인 강의 사이트이다. EBS 사이트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대부분이 무료이지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이나 각종 시험 대비 강의는 유료가 대부분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내신과 입시를 위주의 강의를 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듣기와 독해가 대부분이다. 영어 쓰기에 관한 강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또한 일반 성인 대상의 어학 강의도 마찬가지로 어휘, 문법, 독해, 회화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작문과 관련된 16개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었지만 모두 유료강의이다. 유료강의이지만 요즘은 강의를 다운 받아 휴대기기로도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강

의를 선별하여 시간이나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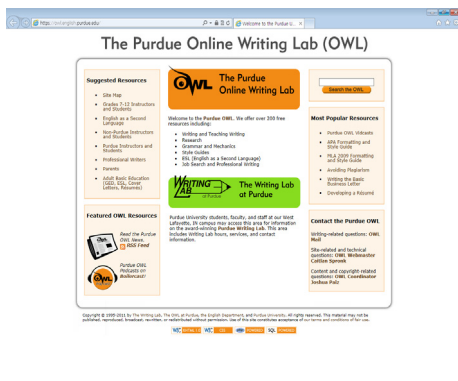
두 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사이트는 영어로 글을 쓰기 위한 많은 조언과 설명을 하고 있는 'Daily Writing Tips(www.dailywritingtips.com)'이다.



[Fig. 1] The first page of Daily Writing Tips

위 사이트는 Business writing, Fiction writing, Freelance writing, Writing basics 등으로 나누어 영어 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어휘나 문법에 관한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하지만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이 영어로 되어 있어, 영어 독해에 어려움을 느끼는 초보 학습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중급 이상의 학습자가 사용하기에 좋은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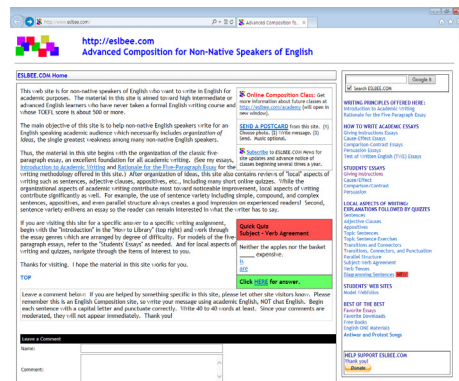
세 번째로, 퍼듀대학에서 제공하는 '퍼듀대학 온라인 영작문 교실(http://owl.english.purdue.edu)'이다.



[Fig. 2] The first page of the Purdue Online Writing Lab

퍼듀대학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인만큼 내용도 다양하고 충실하여 영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다. 글을 쓰는 과정을 한 단계씩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글을 쓸 때 무엇이 필요한지, 글 쓰기 전 단계에서 할 일, 글을 쓰고 고쳐 쓰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다. 또한 학문적인 글쓰기부터 일반 글쓰기까지 분야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문법과 맞춤법까지도 상세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 역시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 독해가 되지 않는 학습자에게는 효과가 30% 없지만 영어 독해가 어느 정도 가능한 학습자들에게는 글쓰기의 기본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이다.

네 번째로, 'Eslbee(http://www.eslbee.com)'는 영어로 작문할 때 알아야할 내용들을 설명과 함께 퀴즈를 통해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Fig. 3] The first page of the Eslbee

퀴즈를 통해 학습을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퀴즈 문제를 풀 뒤에는 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파일을 PDF로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에세이 샘플도 제공하고 있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하는데 막막할 때 다른 학생들의 모범적인 글을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어쓰기 관련 사이트는 'Lang-8(http://lang-8.com)'이다. 이 사이트는 영어 글쓰기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는 사이트라기 보다는 실제 원어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전 연습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영어쓰기에 관한

설명을 위한 사이트가 아니고 직접 쓴 글을 원어민에게 무료로 수정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이다. 게다가 영어 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에 대해서도 수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ig. 3] The first page of the Lang-8

우선, 이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영어로 작성한 글을 올려야 한다. 그러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이 그 글을 읽고 틀린 부분을 잡아 수정과 함께 피드백을 해준다. 외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글을 올려서 수정을 받고, 또한 자신의 모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의 글을 수정해 줄 수 있는 사이트이다. 즉, 본인이 학습자인 동시에 튜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 다른 나라의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3.4.2 커뮤니티, 블로그를 활용한 영어쓰기

요즘은 커뮤니티(카페)나 개인 블로그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영어학습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나 블로그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회원 가입을 하면 많은 양의 유용한 자료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몇 가지 유용한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커뮤니티는 '45문장으로 끝내는 영작문(<http://cafe.daum.net/45english>)'이다. 이 커뮤니티는 영작에 관한 강의의 연습 문제들이 풍부하게 탑재되어 있으며, 녹음 파일을 듣거나 동영상 파일을 본 후에 내용을 기억하여 자신의 말로 바꾸어 써볼 수 있는 기회

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쓴 글에 대해서 첨삭이나 수정을 해주지는 않지만, 연습할 자료들을 풍부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영어로 글을 쓰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영어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다. 하명옥의 '영어일기(<http://endiary.blog.me>)'는 영어로 일기를 쓰려는 학습자들에게 영어 일기 쓰는 법부터 시작하여 상황별 표현과 어휘를 알려주고, 예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담고 있는 블로그이다. 또한 문학작품으로도 알려져 있는 안네의 일기나 즐라타의 일기를 포함하여 외국인들이 쓴 일기도 학습자들이 읽고 배울 수 있도록 수록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영어 작문 뿐 아니라 듣기, 말하기, 읽기까지도 모두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과 각종 영어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영잘원(<http://cafe.naver.com/englishenglish>)'이라는 커뮤니티이다. 이 커뮤니티는 영작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 동영상도 포함하고 있어 초보자들에게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양의 영어 학습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 학습하려는 학습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커뮤니티는 '홍글리쉬와 함께하는 영어작문공부 (<http://cafe.naver.com/honglishhong>)'이다. 이 커뮤니티 역시 기본적으로 영작에 관한 수업 영상이 있으며,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담고 있다. 영어공부에 관한 방법과 유익한 사이트를 소개하고 영작에 필요한 자료들이 게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많은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많은 자료와 강의로 학습자들에게 영어로 글을 쓰기 위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이트가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기 보다는 영어 쓰기에 관련된 단순한 자료제공에 그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나 블로그에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도 있는 만큼 학습자들이 학습을 할 때 자료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3.4.3 E-mail, 채팅을 활용한 영어쓰기

이메일과 채팅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주고받음으로써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메일을 통하여 펜팔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그 중 몇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http://www.penpalworld.com>’, ‘<http://www.hi5.com>’, ‘http://www.studentsoftheworld.info/menu_penpals.php’, ‘<http://www.penpalwel.com>’, ‘<http://www.interpals.net>’, ‘<http://www.penpalworld.com>’과 같은 사이트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메일 친구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http://ko.penpal-gate.net>’는 한글로 여러 설명이 있으며, 번역기가 사이트에 달려 있어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유용하다.

영어로 채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오메글(<http://omegle.com>)’이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나 이동식 단말기로도 채팅을 할 수 있어 학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다른 영어 채팅 사이트로는 ‘쉐어드 토크(<http://sharetalk.com>)’가 있으며 한국어로 설명이 있어 초보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메일은 편지를 보낸 후 상대방이 편지를 읽고 답신을 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또한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으며 자신이 쓴 글을 읽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채팅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글에 대해 응답을 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영어 글쓰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순발력을 습득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영어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에게는 채팅보다는 이메일로 소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메일과 채팅은 원어민과 직접적으로 영어로 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고받는 글들의 문법이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비문법적인 글들이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메일과 채팅에 사용되는 언어는 은어를 포함하고 줄여 쓰는 말들이 많으며 철자가 틀리는 경우도 많다. 또한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을 선호하여 쓰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작문 연습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글을 쓸 때 되도록 명확하게 글을 쓰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네티켓을 지키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3.4.4 기존 온라인사이트의 문제점 및 개선안

기존의 온라인사이트는 대부분 영어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영어쓰기 방법에 관한 강의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영어쓰기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하는 자료들이 제대로 원어민들에 의해 검증이 되었는지에 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학습자들이 사용하기에 실질적이면서 최신의 자료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또한 이러닝의 장점인 쌍방향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보다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실제 목표어 환경에서 사용되는 실질적이고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영어쓰기를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과정의 초기에서부터 학습자들이 다양하고 실제적인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은 영어교육에 있어서 영어를 원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 환경을 통해서 학습자는 상대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자료제공이나 강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대화식 저널쓰기 등과 같이 학습자들끼리 협동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학습자가 영어쓰기에 대해 학습을 한 후에는 실제적으로 영어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야 하며 학습자가 쓴 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갖추어 학습자가 자신의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결론 및 제언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교육 분야에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온라인 학습인 이러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닝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가 실현된 것이다. 또한 이러닝은 학습자가 주도하는 학습을 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수

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여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영어는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아닌 세계 공용어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언어가 되었다. 영어를 배우고 사용한다는 것은 물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직접 만나 대화를 하기 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글로써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어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영어 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 학습자들이 이러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자들은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통해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서 영어 글쓰기에 관한 강의와 학습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학습비용면에서 효과적이고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을 할 수 있다.

둘째, 이러닝을 통한 영어 쓰기 학습은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가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또한 자신이 선택하여 학습을 하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셋째, 이메일이나 채팅을 이용하여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과 글로써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이메일과 채팅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원어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영어를 학습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이러닝을 통한 영어 쓰기 학습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는 EBS 온라인 강의의 경우 학생들을 위한 작문 관련 강의가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초등학교부터 영어로 글 쓰는 것을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강의를 많이 편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도 이러닝을 활용한 영어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 대학의 경우 영어 쓰기 학습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대학의 경우 이러한 사이트를 만든 학교를 찾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학습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 쓰기에 관련된 좋은 사이트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어쓰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유료인 경우가 많고 영작에 대한 강의가 침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는 업체의 경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상업적인 의도로만 이러닝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식을 생각해보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Hye-Sun Shin, The Practical Use of Internet for Improving English Writing Skill. Master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gu University, 2004.
- [2] Hyun-Sun Yoo, A Study on e-learning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Adult learners. Master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2012.
- [3] Young-Sim Choi, A Study on Middle School English Writing Education through Internet: the case of Problem-Based Learning. Master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lsan University, 2004.
- [4] Jeong-Ryeol Kim, e-learning and English education. Hankukmunhwasa, 2008.
- [5] William Horton, Leading e-learning. Natl Book Network, 2001.
- [6] Marc J. Rosenberg, E-learning: Strategies for Delivering Knowledge in the Digital Age. McGraw-Hill, 2001.

- [7] In-Sook Lee, e-Learning in cyberspace. Moonumsa, 2002.
- [8] Suk-Joo Yoon, A Study on the Impact of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Satisfaction through e-Learning in High School.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wandong University, 2011.
- [9] Jong-Chul Lee, Hyun-Gu Kang, E-learning and Edutainment. Geulnurim Publishing Co, 2007.
- [10] Deok-Hoon Gwak, A Proposal for Improvement of e-learning. KERIS Journal, First issue, 14-17, 2004.
- [11] Yoon-Hee Soh, Writing Communicative English Teaching, 50(4), 97-116, 1995.
- [12] Chan-Kyo Min, English Education and Teaching Writing, English Teaching, 48, 171-187, 1994.
- [13] Young-Mi Heo, The Effects of SNS(Social Network Service)-Based English Writing Instruction on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glish Writing Abilities and Affective Domains. Master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2012.
- [14] Wilga M. Rivers,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2n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15] H. Douglas Brown,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3rd Ed). Pearson, 2007.
- [16] Hong-Joo Kim, The effect of E-based Dialogue Journal Writ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riting. Master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1.
- [17] S. Krashen,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ergamon Press, 1982.

류 다 영(Ryu, Da Young)



- 1996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영어영문학사)
- 200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영어교육, e-learning, 영미소설, 영미희곡

· E-Mail : modestar99@jwu.ac.kr